

전력생산부터 소비까지 AI... 한전, 에너지 플랫폼기업 도약

AI혁신단 신설하고 AI 적용 가속
고객서비스·안전·ESG경영 혁신
“에너지·AI 융합, 미래 성장 동력”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선언하며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2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AI 경영혁신 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AI 플랫폼 사업자(The Best Energy AI Platform Provider)’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 사장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AI 기반 전력산업 전환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AI 경영혁신을 선포하고 있다. /한전

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경영 혁신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전력 생산·송배전·소비 전과

정에 AI를 적용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와 안전·ESG 경영까지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은 ▲데이터 ▲

솔루션 ▲인프라 ▲거버넌스·협력 ▲역량·문화 등 5대 축으로 구성됐다.

전력데이터에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데이터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AI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기존 나주와 대전 데이터센터 두 곳을 AI데이터센터로 전면 전환하고 고성능 GPU자원을 확충해 AI솔루션을 구동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내 AI 연구조직과 외부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 특화 AI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같은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AI혁신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실행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언은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도 맞물린다. 한전은 ‘AI-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연계해 전력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 본원 사업인 전력망 효율을 극대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혁신”이라며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방위적 경영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향후 글로벌 전력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에너지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 혁신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폴리텍대, 사천에 ‘전투기 테마캠퍼스’ 개장

체험형 과학기술 플랫폼으로 확장
공군 F-4·F-5 전투기 등 3대 확보

한국폴리텍대학이 경남 사천에 전투기 실물을 전시한 ‘우주항공 테마 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개방에 나섰다.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형 과학기술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폴리텍대학은 24일 오후 사천 항공캠퍼스 광장에서 ‘우주항공 안보 역사 테마 캠퍼스’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우주항공 테마 캠퍼스 조성으로 전시되는 실물 항공기가 확대됐다. 기존 야외 전시 기체 3대에 더해 F-4 팬텀, F-5 프리덤 파이터와 해군의 UH-1H 헬기 등 3대를 새롭게 확보해 총 6대의 항공기가 캠퍼스 전면 광장에 배치됐다.

이번 인프라 개편은 항공기 이전을 추진한 대학의 노력과 사천시의 공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물이다.

항공기 이전과 함께 전시장 표지석 설치, 바닥 리모델링, 야간 조명 및 포토존 조성 등이 이뤄지면서 캠퍼스는



사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우주항공 안보역사 테마 캠퍼스 전경 /폴리텍대학

사천시의 새로운 우주항공 랜드마크로 탈바꿈했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체험형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에 확대 운영한다. 대국민 직업체험 공간인 ‘꿈드림 공작소’를 상시 개방하고 ‘열린 도서관’을 조성해 캠퍼스를 관광과 기술 교육이 융합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 캠퍼스 공간 조성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행보”라며 “폴리텍대학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의 위상에 맞춰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누구나 첨단 기술을 체험하는 열린 직업교육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영휘 항공캠퍼스 학장도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항공기들이 이제는 실습장을 넘어, 지역민의 항공 지식 보급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태안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군 작전성협의 조건

정부가 1.4GW(기가와트)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 작전성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외해상)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7곳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정에 나선 것. 태안의 경우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기후부는 다른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태안군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KDN, 신입사원 204명 채용

내달 7일까지 접수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오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2026년도 신입사원 선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KDN은 올해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춰 채용 규모를 늘리고 사무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신규 인력 충원을 추진한다.

채용 규모는 정규직 신규 204명으로, 전산 일반 71명, 연구 5명, 통신 일반 85명, 전기 5명, 정보보호 12명, 안전 관리 1명, 환경·에너지 1명, 사무 22명,

건축설비 1명, 변호사 1명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직무별 전공 능력과 직무 적합성, 한전KDN 인재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서는 한전KDN 채용 누리집(recruit.kdn.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모집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과 일정은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잡알리오(JOB-ALIO)’에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전 직무별 모집 인원과 전형 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항저우 K-푸드페어, 949만달러 계약 성과

B2B 상담회·알리바바 팸투어 진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K-푸드 수출영토 확장을 위한 ‘2026 항저우 K-푸드페어(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aT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 본사가 위치한 항저우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19~20일 기간 B2B 수출상담회와 알리바바그룹 팸투어가 진행됐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B2C 소비자 체험행사도 이어졌다.

B2B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우수 K-푸드 기업 40개사와 중국 전역의 60개 바이어가 참여해 총 553건의 1: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너뷰티 식품, 간편식, 디저트류 등 ‘넥스트 K-푸드(유망품목)’를 중심으로 275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과 총 19건·949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담장에는 수출상담뿐 아니라 범부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K-푸드페어(aT)

처 ‘대외협력 상담관’을 설치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지재권·상표권 상담부터 상품검역, 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 자문 서비스를 지원했다.

aT는 또 박람회에 참가한 수출업체들과 함께 항저우에 위치한 알리바바그룹 본사를 방문해, 온라인시장 확대를 위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활용한 K-푸드의 효과적 홍보 및 중국의 대표 쇼핑 플랫폼인 티몰 내 입점된 온라인 한국식품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종=김연세 기자